

# 언어영역

1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잘못 이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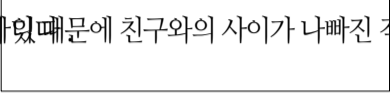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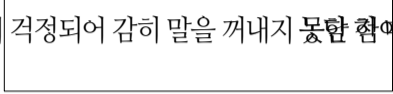
---

# 언어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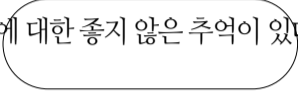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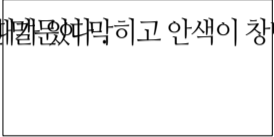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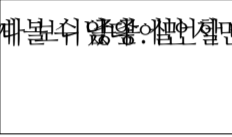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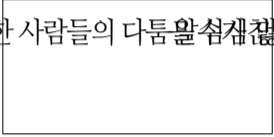
뒷일이 걱정되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의 사이가 나빠진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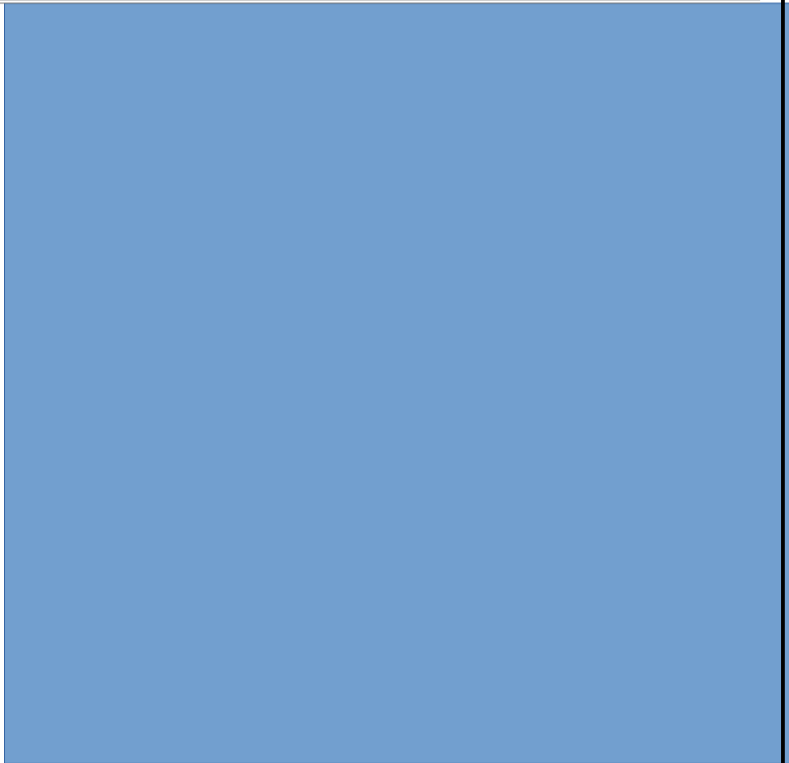
말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거친 말로 인한 사람들의 다툼을 심하게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막히고 안색이 창백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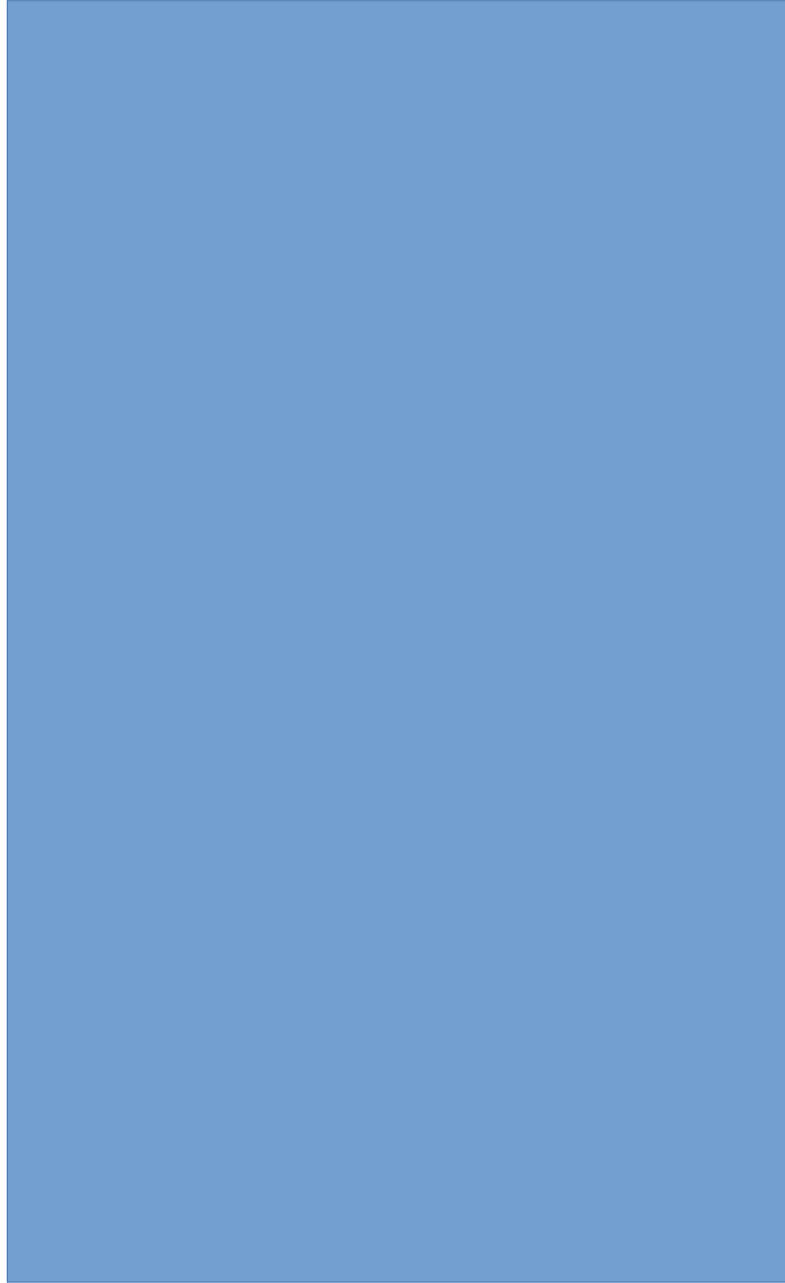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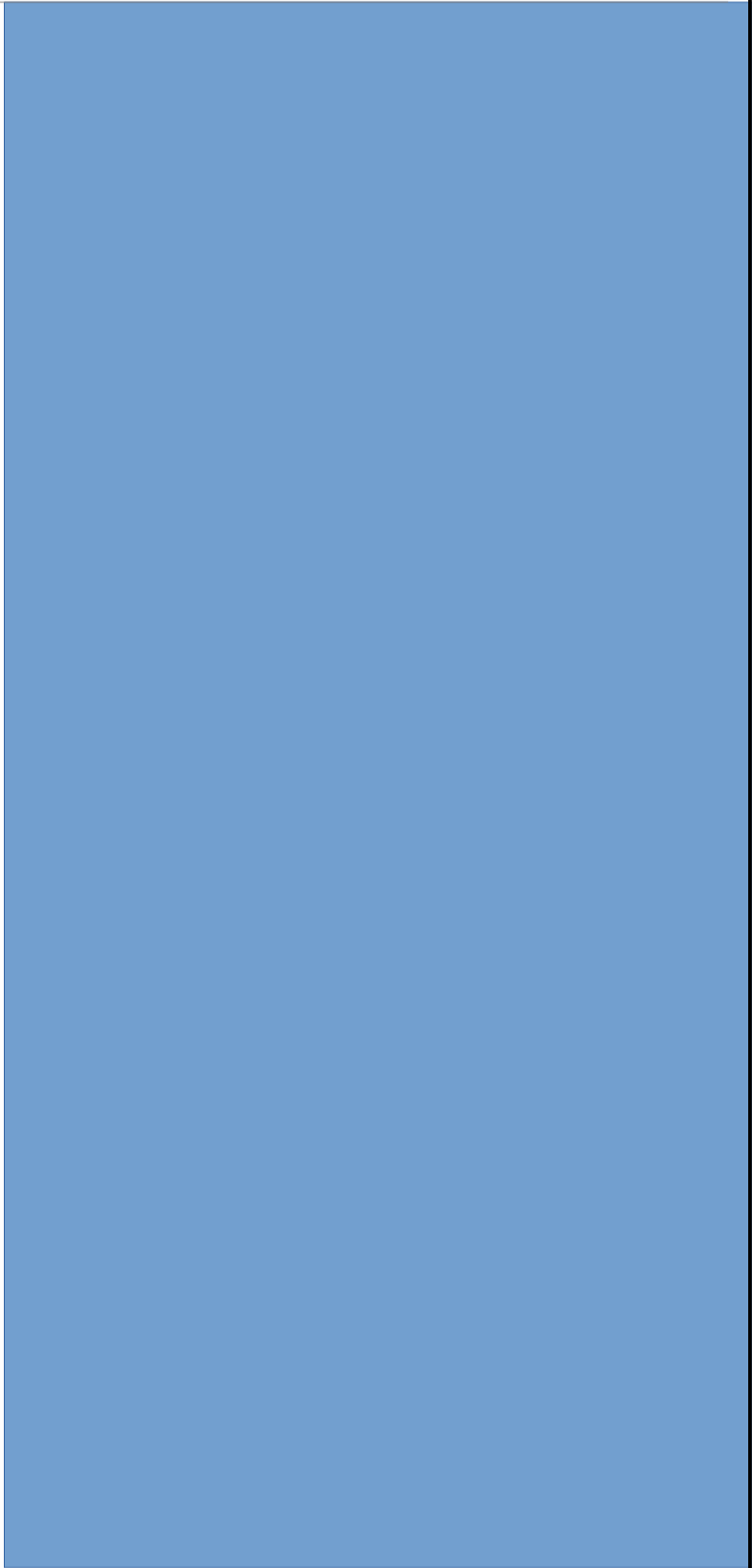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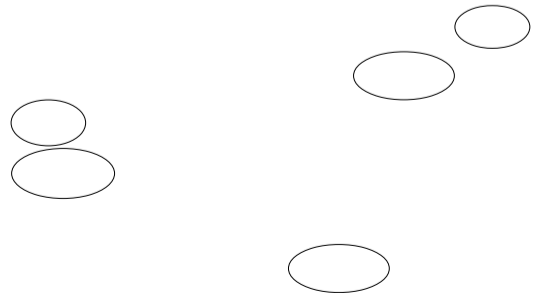
# 언어영역

얹은 것은? [3 점]



얹은 것은? [1 점]

- 어머니, 축구 좀 하다가 집에 가도 (돼요, 되요)?
-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비쳤다).
- 인원을 (늘려, 늘어) 일을 빨리 마쳐라.
- 입맛을 (돋우는, 돋구는) 음식을 보니 시장기가 느껴진다.
- 밤을 새워 공부하려니 힘이 (부친다, 붙인다).



# 언어영역

않은 것은?

삶에서 따뜻한 대화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면 따뜻한 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와 친밀해지기도 하고, 쌓였던 오해도 풀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인간 관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일상 생활에서 공격적인 비속어나 유행어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썰렁하다' 라는 말은 '재미가 없다' 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말한 사람을 무안하게 하거나 대화의 맥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  
 게다가 유행어나 은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저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대화 상황에 적절한 언어 외적 표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어 외적 표현은 몸짓, 태도, 표정, 눈길, 손짓, 옷차림 등을 통해 의사를 들어내는 것으로, 이를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원숙해집니다.

셋째, □  
 '언어도단(?? 코흐)' 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화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여 다정하고 친근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쓸데없는 오해나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문장은? [1 점]

올바른 문장이 되려면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가 적절히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호응 관계가 깨어져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버린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

쇠문을 굳게 닫아  
 □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나)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뺏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다)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등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나그네는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았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

길 머뭇거리네.

- 김시습, '도중(ケ?)'

15. (가)~(다)를 읽고 난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본 고등계 형사가 무시로 찾아와 내 방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이름을 적어 가기도 하고, 고리짝을 뒤져서 편지를 빼앗아 가기도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다시 하숙집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적 상황은 하루하루 나를 무겁게 압박해 왔다.

# 언어영역

않은 것은?

영국의 그룹 핑크 플로이드는 '벽'이라는 앨범을 통해 인간 의식의 저장고를 깊이 파고들어 음악으로 표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현대 사회를 획일적 행위를 강요하는 훈련장이자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보았다. '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 의사를 차단함으로써 자아를 단절시키는 간막이었다. 나뉜 공간들은 고립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마저 막힌 절망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 앨범의 미덕은 이런 순간에도 절망을 벗어나려는 이상향에의 열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
-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학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성직자나 철학자가 상대하는 인간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인간과는 크게 다른 존재다.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는 '경제인'의 특징이 '합리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은 경제학의 대상을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합리적 인간'이 지닌 구체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합리적 인간」은 자기의 이익에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는

오직 두 개의 가치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는 쾌락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오로지 그 자신만 안다.

또 '합리적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합리적 인간'의 태도는 윤리·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언제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기적인 선택 또한 언제나 '합리적'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효용함수'라는 것에 담아놓았다. 가장 단순하게는  $U=f(C)$ 로 표기하는 효용함수는 행복의 수준(U, utility)과 재화소비량(C, consumption)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공식대로 해석하면, 나의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행복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행복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을 소비하느냐는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의 소비량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하는 데서 내가 얻는 만족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세계의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키우는 데 철두철미한, 이기적이고 고립된 존재다. 현실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이타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불합리한 것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의 행동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은 이 예외적인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리(?) 또는 이론들은 바로 '이기적 인간'을 토대로 삼아 엄정한 수학적 증명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의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경제인 스스로 내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 언어영역

얹은 것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린 밥상을 받았을 때, 마침 우리 집 문간에 며칠을 굶은 사람이 힘들게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이 불편해서 진수성찬이 자꾸만 목에 걸렸다. 결국 나는 밥상을 대문 앞의 걸인에게 내주었다. 그로 인해 나는 물과 밥과 김치만 먹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

우연히 백만 원의 돈을 얻게 된 세 명의 사람이 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갑'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모두 사들여 마음껏 읽겠다며 콧노래를 불렀다. '을'은 '갑'이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자기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밤새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병'은 그 돈으로 여러 차례 미뤘던 값비싼 피부마사지와 미용 관리를 받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 언어영역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을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된 객관적 지식의 체계로 보는 생각은 오늘날 상식처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관의 일반화는 과학 혁명으로부터 비롯된다. 과학 혁명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바뀐 일련의 사건을 일컫는다.

과학 혁명은 폴란드의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 신부가 종래의 우주 모델을 뒤엎는 천문학 이론을 발표하면서 막이 올랐다. 그 당시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적 천문학이 부동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천동설을 무려 1500여 년 동안이나 신봉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지동설을 발전시킨 과학자는 갈릴레이이다. 그는 로마 교황청에 고발되어 일흔 살 때인 1633년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고난을 겪는다. 그는 실험과 관찰에 기반을 둔 과학 활동을 하였다. 결국 그런 활동은 종교와 신앙에 바탕을 두었던 전통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과학 혁명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 인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뉴턴이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완성하지 못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뉴턴은 세 가지 간단한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태양, 항성, 행성, 혜성 등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운동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조수의 간만에서 사과 낙하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운동 문제를 해결했다. □

하늘의 것과 □  
땅의 것이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뉴턴에 의해 근대 역학이 완성됨에 따라 서양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특히 19세기 말의 과학자들은 전자기학과 열역학에서 발견된 법칙들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20세기에 기존의 물리학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이 제안됨에 따라, 뉴턴의 물리학은 옛 것이라는 뜻에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전 물리학을 정면으로 거부한 새로운 물리학은 상대론과 양자 역학이다. 상대론은 천재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머리에서 나온 반면에 양자역학은 여러 나라의 위대한 과학자들, 이를테면 프랑크, 보어, 슈뢰딩거 등의 연구로 기틀을 잡았다. 상대론은 우주의 거대한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원자 이하의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2백 년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의해 붕괴됨에 따라, 비관적인 과학론이 대두되었다. 과학 혁명을 통해 가졌던 확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믿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어떠한 과학 이론도 자연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앞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20세기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이 상대론보다 더 위력적으로 고전 물리학의 개념 체계를 뒤엎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연에 대한 인식 능력의 한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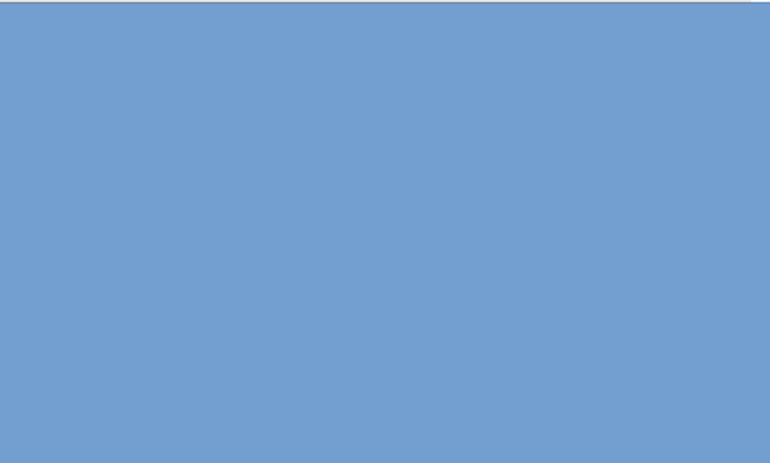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론과 양자 역학은 과학을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확실성도 없는 지식 체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않은 것은?

패러다임은 다양한 관념을 서로 연관시켜 질서 지우는 체계나 구조를 일컫는다. 이 하나의 패러다임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과학적 활동을 정상 과학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정상 과학으로 되기까지의 활동을 이상 과학이라고 한다. 이같이 과학의 역사는 일관된 축적·진보·발달의 역사라기보다 몇몇 패러다임이 교대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교대 현상을 과학 혁명이라고 한다.

않은 것은?



# 언어영역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그(권씨)는 나(오 선생)의 문간방에서 전세를 얻어 살게 된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순산을 하지 못해 분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의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 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아, 그거 참 안됐군요'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선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십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 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 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별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중략)  
"바쁘실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그의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यो."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별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중략)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먹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찌기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땀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철후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 언어영역

11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않은 것은? [1 점]

나는 그에게 겨우 인사말을 하고 돌아선다.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는다. 입 안에서는 '오 선생, ..... 나도 정말 오 선생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소.' 라든가 '오 선생이 내게 그러실 줄은 몰랐소.' 라는 말들이 맴돈다. 그러나 말을 내뱉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혀 버린다. 흠칫 놀라는 듯한 그의 표정은 마치 날아올 화살을 예상하여 무슨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듯하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사학에 관한 크로체의 유명한 언명(??) 중 하나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사의 □

객관성(客觀性)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사는 객관적인가'라는 질문은 '역사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담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은 바로 역사의 □ 공정성(公正性)에 대한 의심에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는 한 예가 사도세자의 경우이다. 일반인들이 지닌 사도세자에 대한 인식은 그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해 생기게 되었다. 수많은 역사 소설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이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중록'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한중록'의 트릭에 걸리고 말았다. '한중록'의 주제는 간단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신병자인 사도세자와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 부친 영조 사이의 충돌의 결과 한 정신병자가 죽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한 세력이 □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혜경궁 홍씨의 친정 아버지 흥봉한이 이끌었던 노론이라는 세력이다.

'한중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 언어영역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 홍봉한이라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홍씨의 친정은 숙대밭이 되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쓴 이유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손자인 순조에게 전하기 위해 '한중록'을 쓴 것이다.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까지 죽어버린 상황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승자의 기록이 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때로는 몇 백년, 어느 경우는 몇 천년 이후에 드러난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상상력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조실록, 정조실록은 물론 당시의 세자를 직접 모셨던 세자궁 관원의 수기 등 여러 사료를 참고해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가 항상 승자의 기록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 역사는 현실에서는 패배했으나 추구하는 방향이 옳았던 세력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직필(??)'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의 권력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

사화(??)를 때로는 사화(??)라고도 부르는 데, 그 이유는 사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관 김일손과 권경유가 연산 4년 무오사화 때 사형을 당한 것은 역사의 객관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사실을 후대에 전하려다가 사형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역사 기록은 객관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

개연성이 필요하다. 역사는 상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연성의 틀 내에서 서술된다면 상당 부분은 객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개연성에 의거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고, 이를 통해 허위를 꿰뚫는 식견과 자료의 잘못을 판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빠진 보고서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

빠져서 공부를 등한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빠지는 것이 없다.

빠져 독서실에 안 가고 오락실에 갔다.

빠진 것같이 시원하다.

않은 것은?

사화(??)는 원래 가해 측인 훈신·척신 계열에서는 '난'으로 규정하였으나 피해 측인 사림계열은 정론을 펴던 현사(??)들이 죄없이 화를 당한 것이라고 하여 '사림의 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림계가 정치적으로 우세해진 선조(??) 초부터는 '사화(??)'라는 용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척신 정치가 일단 종식된 뒤부터는 정치적인 분쟁과 축출이 있어도 그것을 사화(??)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 언어 영역

13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가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어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 요소에 의한 구조적 측면과, 어느 한 언어권의 오랜 생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서의 문화적 측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사람이 언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됨의 한 징표이며, 언어마다 다른 어휘 체계와 표현 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각 언어가 해당 언어 사회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는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가 문화 유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하면서도 말이 문화적 유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새로운 문물 제도가 생겨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한 문물 제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면 그것들을 표현하던 말도 변화하거나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려 더는 쓰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

이들은 지난날의 다양한 생활 풍습, 삶의 모습 등 과거의 문화적 양상을 넓게 그 속에 담아서 당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인들이 쓰던, 또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려받아 쓰고 있는 말은 그대로 문화 유산이요, 무형의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언어는 고고학적 유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는 전례 없이 그 폭이 크다. 어휘 체계의 변화는 이루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젊은이들은 개화기의 인쇄물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외래어의 유입,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말로 인해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말소리, 문법 분야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장단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억양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존대법은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 오늘과 같은 표준어의 고른 보급은 광복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힘든 노력의 결실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후대에 전수되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 가기만 하는 많은 양의 방언은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언어가 과연 귀중한 문화 유산이고, 소중한 문화재라면 소실된 말들을 수집·보존하고, 더는 잃지 않도록 보호할 방안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막아야 할 까닭도 없다. 다만, 급격한 언어의 변화는 언어 규범의 파괴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완급을 조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언어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언어 변화의 궤적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 자료들을 보존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않은 것은? [1 점]



# 언어영역

발이란 놈은 여전히 편하다. 도대체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따금 걸어다니는 일 이외에는 그저 가죽옷이나 입고 거드럭거리거나 하면 그만 아닌가?
도대체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제깃 놈이 뭘테 내가 온종일 떠받치고 살아야 하는가?
a 월 b 일
여인네들은 더러 시원한 장갑으로 햇볕을 막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인은 그럴 줄도 모른다. 발이란 놈이 부럽다. 온종일 시원한 양말로 몸을 가리고 그들 속에서만 지낸다. 헌데 손이란 놈은 무슨 팔자인가. 대낮에도 벌거벗고 시원스레 나돌아 다녔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른바 ㉠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벼이삭을 낚는 선비는 필묵(??)과 조희, 벼루로 문방 사우(???)를 삼았나니 규중 녀재들 홀로 어찌 벼이 없으리오. 이리므로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벼를 삼을새, 바늘을 세요 각시(??)라 하고, 자(??)를 척 부인(???)이라 하고, 가위를 교두 각시(??)라 하고,

(중략)

일일(??)은 칠우 모혀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자히며 이르되,

"제우(??)는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 명지 백저포(???) 세승포(???)와, 청홍녹라(???) 자라(??) 홍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를 마련할 새, 장단 광협(??)이며 수품 제도(??)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루리오. 이리므로 의지공(??)이 내 으뜸되리라."

교두 각시 양각(??)을 빨리 돌려 내다라 이르되,

"척 부인아, 그대 아모리 마련을 잘 한들 버혀 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되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마라."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뭇기며 날랜 부리 두루혀 이르되,

"양우(??)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펜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에 능소 능대(??)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를 어찌 하리오."

(중략)

규중 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언필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정할사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녀재로다. 의복 마를 제는 묻저 찾고 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중 잠 깨오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브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흠지 아니리오."

- 작자 미상, '규중 칠우 쟁론기(???)' ㉠

(나)

어느 날, 나는 좀 심심해서 나의 ㉡

손과 발이 쓴 일기를 들추어보았다. 다음은 같은 날에 쓴 두 녀석의 일기를 몇 곳 대조해 본 것이다.

a 월 a 일

이 두 녀석의 일기를 대조해 읽으면서 나는 펍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세상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줄을 알겠다.

- 정진권, '손과 발의 일기'

않은 것은? [1 점]



# 언어영역

15

않은 것은?

수필에서는 (나)와 같이 사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의 장점 또는 단점을 거론하여 교훈적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이 주는 갖가지 느낌은 조형만으로는 충분히 환기되기 어렵다. 게다가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감수성의 내용은 다만 오감으로 포착되는 현재의 감각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때, 그것은 즉각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결합하여 좀더 고차원적으로 바뀌게 된다.

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옛 산수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수 자체가 주인공이다. 사람은 주인공인 산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모셔 두고서 지켜다 보고, 내려다 보고, 비껴 보고, 휘둘러 봄으로써 산수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접근하려 한다. ㉠

우리

시각이 뒤섞여 있으니 작품 전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임직한데, 오히려 옛 산수화를 보면 마음이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서양의 투시 원근법상의 논리로부터 슬그머니 도망쳐 나온, 수없이 많은 자잘한 여백들이 경물과 경물 사이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서양 입체파의 선구자인 피카소가, 사물을 보는 자유롭고도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서양 회화사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하나, 그의 작품은 종종 형상을 너무 무리하게 왜곡시켜 감상자에게 주관 속의 일그러진 인상만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입체파의 모범은 오히려 우리의 옛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산수화는 결코 자연의 사실성을 훼손하여 그것을 화가의 개인 의식 속으로 침몰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대상이 살아 있고, ㉡

그 대상에 반응하는 인간도 자연과 함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언어 영역

대상 I 을 소개하고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대상 I 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 II 가 지닌 장점을 드러낸다.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의 인공 지능 컴퓨터는 한정된 범위의 지식 영역에서는 전문가에 ㉠

견줄 만한 지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상식을 이용한 추론이나 인간이 매일 겪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감각 정보의 처리 등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능력이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 방법보다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

지닐수록 지능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인공 지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인공 지능 연구자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의 인공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개 이상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가 이 정도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더라도, 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반면에 인간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기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과 상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의 지식까지 끌어들이어 상황을 올바르게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컴퓨터와는 달리 지식의 사용 규칙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많은 형태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비슷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간이 행하는 몇 가지 형태의 지적 행위들을 제한된 범위에서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실현하려는 꿈은 아직 갈 길이 ㉢

멀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 속에만 있던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이 오늘날 그대로 실용화되어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의 세계가 점차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공 지능에 대한 상상이 내일에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공 지능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에 ㉤

이르  
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장애물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해결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개발, 인간의 감각 기관과 유사한 센서의 개발, IC 소자의 집적화·소형화·대용량화 등의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미래의 세계는 단순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한 미래는 인공 지능 컴퓨터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1 점]



# 언어영역

17

않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토머스 앤더슨은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이다. 어느 날 그는 전설적 해커인 모피어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가 1999 년으로 알고 있는 현재가 사실은 2199 년이며, 인공 지능 컴퓨터 AI 가 가상 현실을 담은 '매트릭스'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을 가축처럼 사육하면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의 동력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AI 에게 사육되는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토머스는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이버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장 적절한 것은?

않은 것은? [1 점]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에 사는 김 진사가 서울에 벼슬을 구하러 간 사이, 그의 아내 이(?) 부인은 딸 채봉을 이웃에 사는 장생과 결혼시키기로 한다. 한편 김 진사가 찾아간 서울의 세도가 허 판서는 김 진사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자신에게 첩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김 진사는 이를 승낙하고 벼슬을 얻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님 먼 길 안녕히 다녀 내려오셨습니까?"

김 진사는 채봉을 보고 귀한 생각이 한층 더 나서 채봉의 등을 어루만지며,

"오냐, 잘 있었느냐? 그대 그간 글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도 많이 익혔느냐?"

그러면서 이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여보 마누라! 참 얘기가 이제는 침선(??) 같은 것은 배워도 쓸 데가 없구려. 침모(??)가 다 해다 바칠 테니 말시오."

채봉이 얼굴을 숙이니 불이 발그레해지더라. 김 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나, 여염집 부인이 좋으나? 아비 어미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소원대로 말해 보아라."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대꾸를 하여 대답하리요마는,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을 뿐 아니라, 장생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하더니, 부모의 히는 말을 들은 터이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안색을 바로 하고 대답하되,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뒀가 되기는 원(??)이 아니올시다."

"□"

허허 그 자식. 네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이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 진사를 쳐다보며,

"□"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하시는구려. 딸 자식이란 것은 바깥부모의 하시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온갖 세간을 내다 팔아 서울로 올라갈 행장을 차리니라.

이 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장생의 일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운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이 무엇인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일조에 날로 하여금 신의(??)를 배반하고 천첩(??)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리하거니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죄(????)를 면하리라."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이윽고 □

한 피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애,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어나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씨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어나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 언어영역

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글썩을시다.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께서 마음이 변하였으니, 아마 소저는 서울 마님께서 꼭 되는 길밖에 없을까 하외다. 그러나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마는, 나는 이 바닥에 살며 장씨를 무슨 낫으로 뽑니까."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 "이애,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다."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 가다가 중로(??)에서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취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시면 진사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익일 오경(?Z)에 발행(??)할새, 취향이 손을 잡고 이별하거늘, 주머니에서 돈 50 냥을 주며 은근히 부탁하되,

"이걸로 노자를 삼아 부디 어젯밤 약속을 잊지 말고 따라오너라."

총총히 작별하고 교군에 올라앉으니, 김 진사와 이 부인이 속도 모르고 채봉의 마음 돌림을 다행으로 여겨 곧 발행하더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밤이 되어주막에서 설새, 삼경쯤 사면에서 '으악' 소리가 나며 불빛이  
충천하거늘 김 진사가 누웠다가 놀라 나와 보니, 칼을 든 화적 (??) 이 물밀듯  
들어오며 사람들이 크게 놀라 피난하니라. 김 진사주막 안채로 들어가 보니  
채봉은 간데없고 처처에 들리나니 울음소리뿐이라.